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현숙*⁺·소미현**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The effect of self-esteem, self-efficacy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Hyun-Sook Kang*⁺·Mi-Hyun S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life adoption, self-efficacy, and self-esteem in undergraduates majored in dental hygiene to explore the ways to prevent college dropouts and promote and support college life adaptation.

Methods: This study was made with the use of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with 200 undergraduate students, aged 19 or older, majored in dental hygiene in three colleges situated in Gyeonggi-do, from September 02 to 11, 2019.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Version 22.0.

Results: First, the degree of college life adaptation in undergraduates majored in dental hygiene was found to be the highest, in those who were under 20 years old and first grade, decided to major in dental hygiene because of 'its aptitude and future career', and graduated from general high school and with a high economic level. Second, the degree of college life adoption was found to be the highest in the third grade in terms of social adaptation, and of the first grade was higher than the second grade. Third, as for the degree of attachment to college, it was revealed to be the highest in those decided to major in dental hygiene because of 'its aptitude and future career', and the degrees of academic adaptation, emotional adaptation, and attachment to college were found to be higher in

*본 연구는 2019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순수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 : 2019년 11월 25일, 수정일 : 2019년 12월 9일, 채택일 : 2019년 12월 10일

교신저자 : 강현숙(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온정로 72)

Tel: 031-290-8254, Fax: 031-290-8248, E-mail: khsook@swc.ac.kr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than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s. Fourth, the factor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undergraduates majored in dental hygiene was found to be self-efficacy, followed by self-esteem and economic level.

Conclusion: From these results,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when developing programs to prevent college dropouts in undergraduates majored in dental hygiene, it should consider their high schools, school grades, and motivations to decide to major in dental hygiene. In addition, in order to take an educational approach to rais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making to raise the degree of college life adaptation.

Key words: Self-Esteem, Self-Efficacy, College life adjustments, Dental hygiene students, Health education

I. 서론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 평균은 약 93%로, 아시아 국가의 평균인 약 42%의 약 2배를 차지하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통계청, 2018),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는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대학 내의 다양한 물리적, 인적환경과 학생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대학생 생활적응이라 할 수 있다(권혜진, 2007).

대학 시기는 졸업 이후의 진로와 취업 등 미래의 사회진출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다 성숙한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생생활적응은 중요한 관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권현주, 2012). 고등학교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자아에 대한 욕구가 고조되므로 다양한 도전과 더불어 좌절의 기회도 많아진다. 또한, 사회적 경험의 미숙으로 충분한 적응기술을 획득하지 못해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우쳐 있어 대학 입학 이후에 주어지는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에

당황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치위생과에서 전공하는 치위생학은 보건의료직종의 하나로, 구강질환예방과 치료, 구강보건교육, 환자상담 및 병원관리를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이론 수업과 임상실습 수업을 병행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증진과 함께 임상에서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포괄적인 치위생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전공 학술지식 습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공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중도탈락률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대학알리미, 2016-2018)에 의하면 치위생과 학생의 중도탈락률 평균은 10%로, 2017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중도탈락률 평균 6.8%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며(2018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여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증재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결과,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성을 보였으며(오윤정, 2017), 자기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애경 등, 2013). 또한 자아존

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의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성을 보이며,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음이 보고되었다(유은영, 2009; 장수현과 이미영, 2015). 즉, 대학생활 스트레스 극복 및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개입들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하거나 수용하는 주관적인 신념이라 할 수 있다(Rosenberg 등, 1978).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특정 과업 성취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으며(Bandura, 1977),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구분되어 진다. 개인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정도에 따라 과업에 대한 성공도 및 효율성이 달라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높고, 자아존중감도 높으며, 학업에 대한 성취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혜와 김경덕, 2007).

그러나, 그동안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감성지능,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 등에 대한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최혜정과 이명선, 2013; 윤현경 등, 2015; 김영선과 이정화, 2016), 대학생활적응에 큰 연관성을 보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증도탈락을 방지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학년, 입학동기,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영역별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정도와 주요하위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정도에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 대상자의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획득하였다. 설문지 작성 도중이라도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본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암호화된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관하여, 연구종료 3년 후 모든 자료를 폐기함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IRB:P01-201908-22-003) 거쳐 진행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이며 만 19세 이상인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alpha=.05$, 중간수

준효과 0.3, power $1-\beta=.95$ 를 유지하는데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78명으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치위생과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과 취지, 응답의 비밀보장, 중도 참여 철회,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등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총 200명 대상자 전원의 응답결과를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학년, 주거 형태(가족동거, 독거), 지원동기, 졸업고등학교 유형 및 경제적 수준을 묻는 6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대학생활 적응도는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Baker 등(1989)이 제작한 대학생적응도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이윤정(2000)의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본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0.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842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커트만 척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평정하여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659이었다.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Tipton과 Worthington(1984)가 개발하고,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양숙미(2000)의 자기효능감 척도(The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8개의 문항과 3개의 하위척도(과업효능감, 대처효능감, 정서통제효능감), 총 7점 척도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하여 하위척도별로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본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0.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810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 test 후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학년, 입학동기, 출신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세부영역별 차이비교를 위해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착 총 5개 세부영역으로 나누고 세부 영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NOVA test 후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정도는 평균값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누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test 후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도와 주요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결과는<Table 1>과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연령이 20세 미만(M=84.72)이고, 1학년(M=84.72)이며, 치위생과에 입학한동기가 적

성과 취업을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M=82.20)에 높았고, 출신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M=81.81)이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M=83.78)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추가로 사후 분석을 한 결과, 학년별로는 2학년보다 1학년의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치위생과 입학동기는 '성적을 고려'하거나 '지인의 추천'으로 입학한 경우보다 '적성과 취업을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경제적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중간인 경우,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5$).

<Table 1> College life adjustment, self-efficacy, self-esteem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0

Division	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fficacy		Self-esteem		
		M±SD	t/f	M±SD	t/f	M±SD	t/f	
Age	<20	44	84.72±12.77	2.445*	77.18±13.29	-.857	28.34±4.18	-.125
	20≤	126	79.21±13.32		79.34±15.18		28.42±3.73	
Grade	1 st grade	55	84.72±12.24 ^a	6.450*	81.40±13.87	3.830*	28.76±4.05	.525
	2 nd grade	72	76.45±13.39 ^b		75.08±13.76		28.06±3.82	
	3 rd grade	73	81.10±13.19		80.69±15.83		28.46±3.67	
Cohabitation type	Live with family	158	80.80±13.28	.733	78.86±14.96	-.330	28.40±3.71	.037
	live alone	42	79.11±13.05		79.71±14.58		28.38±4.09	
Admission motive	Grades	19	77.26±12.27	3.671*	73.52±13.89	2.419	26.84±3.27	2.364
	Aptitude, get a job	134	82.20±12.41 ^a		80.51±14.92		28.73±3.94	
	Recommendation	47	76.74±14.98 ^b		77.06±14.56		28.06±3.35	
High school type	Regular high school	136	81.81±12.16	2.246*	78.79±15.15	-.258	28.30±3.83	-.453
	Specialized high school	64	77.33±14.92		79.38±14.34		28.57±3.72	
Economic level	Low	50	74.16±14.82 ^a	8.048*	77.62±16.98	1.004	28.28±4.11	.137
	Moderate	118	82.17±12.27 ^{bc}		78.50±12.23		28.37±3.76	
	High	32	83.78±13.36 ^c		82.15±19.20		28.71±3.69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independent t-test & one-way ANOVA test at $\alpha = .05$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영역별 차이

1)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영역별 차이

연구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결과<Table 2-1>,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는 3학년의 적응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1학년의 적응도(M=18.03)이 2학년의 적응도(M=16.66)보다 높았으며, 2학년보다는 3학년의 적응도(M=18.47)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대학애착에 있어서는 2학년(M=15.41)과 3학년(M=16.83)보다 1학년의 대학에 대한 애착(M=18.52)이 큰 결과를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나, 학문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에 있어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연구대상자의 입학동기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영역별 차이

연구대상자의 입학동기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결과<Table 2-2>, 대학애착에 있어 적성과 취업을 고려하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대학애착도(M=17.36)가 가장 높았다.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지인의 추천에 의해 입학한 경우(M=15.55)보다 적성과 취업을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 유의미하게 높았다(p<0.05).

<Table 2-1> Differ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rade

Division	Grade			t/f	p
	1 st grade (n=55)	2 nd grade (n=72)	3 rd grade (n=73)		
	M±SD	M±SD	M±SD		
Academic adjustment	15.00±2.88	13.86±3.37	14.54±3.39	1.989	.140
Social adjustment	18.03±2.91 ^a	16.66±3.44 ^{ab}	18.47±2.94 ^{ac}	6.504	.002*
Emotional adjustment	17.29±3.75	15.72±4.13	16.08±4.38	2.383	.095
Physical adjustment	15.87±3.80	14.79±2.64	15.16±3.35	1.737	.179
Attachment to college	18.52±3.67 ^a	15.41±4.27 ^{bc}	16.83±3.35 ^c	10.483	.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one-way ANOVA test at $\alpha=.05$

<Table 2-2> Differ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rade

Division	Grade			t/f	p
	1 st grade (n=55)	2 nd grade (n=72)	3 rd grade (n=73)		
	M±SD	M±SD	M±SD		
Academic adjustment	15.00±2.88	13.86±3.37	14.54±3.39	1.989	.140
Social adjustment	18.03±2.91 ^a	16.66±3.44 ^{ab}	18.47±2.94 ^{ac}	6.504	.002*
Emotional adjustment	17.29±3.75	15.72±4.13	16.08±4.38	2.383	.095
Physical adjustment	15.87±3.80	14.79±2.64	15.16±3.35	1.737	.179
Attachment to college	18.52±3.67 ^a	15.41±4.27 ^{bc}	16.83±3.35 ^c	10.483	.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one-way ANOVA test at $\alpha=.05$

3) 연구대상자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영역별 차이

연구대상자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생 활적응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결과<Table 2-3>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학문적 적응도 (M=14.82), 정서적 적응도(M=16.67), 대학애착도 (M=17.33)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2-3> Differ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high school type

Division	High school type		t/f	p
	Regular high school (n=136)	Specialized high school (n=64)		
	M±SD	M±SD		
Academic adjustment	14.82±2.98	13.61±3.70	2.479	.014*
Social adjustment	17.41±3.16	18.24±3.26	-1.713	.088
Emotional adjustment	16.67±3.72	15.43±4.88	1.996	.047*
Physical adjustment	15.51±3.12	14.60±3.50	1.860	.064
Attachment to college	17.33±3.72	15.60±4.23	2.948	.004*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independent t-test at $\alpha=.05$

3. 대학생활적응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차이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정도를 평균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낮음, 보통, 높음'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Table 3>, 대학생 활적응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Table 3> Self-efficacy, self-esteem of subjects according to college life adjustment

Divis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f	p
	Low n=63	Moderate n=68	High n=78		
	M±SD	M±SD	M±SD		
Self-efficacy	72.19±11.89 ^a	75.51±14.50 ^{ab}	87.41±13.24 ^c	26.230	.000*
Self-esteem	26.98±3.93 ^a	27.77±3.39 ^{ab}	30.20±3.25 ^c	16.425	.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one-way ANOVA test at $\alpha=.001$

4. 대학생활적응도와 주요 하위변수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년, 경제적수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경제적수준($r=.249, p<.01$), 자기효능감($r=.435, p<.01$), 자아존중감($r=.429, p<.01$)와 대학생활적응과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수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적응과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경제적수준이 높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Table 5>는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정도에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Du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849로 검정통계량(1.799)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차한계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Cook's D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개 중 1.0이상인 개체는 없었으며, 잔차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8.746, p<(0.001)$). 치위생과 학생의 대학생활적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279$)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beta=.267$), 경제적수준($\beta=.216$) 순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28.9%이며, 수정된 설명력은 27.9%로 분석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college life adjustment and major variable

Variable	University life adjustment	Age	Grade	Economic level	Self-efficacy	Self-esteem
University life adjustment	1					
Age	-.006	1				
Grade	-.088	.245**	1			
Economic level	.249**	-.034	.066	1		
Self-efficacy	.435**	.055	-.002	.090	1	
Self-esteem	.429**	.009	-.025	.034	.533**	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t $\alpha=.01$

<Table 5> Factors affected college life adjustment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2	ADJ R2	F
(Constant)	25.050	6.521		3.841	.000			
Economic level	4.533	1.272	.216	3.565	.000	.289	.279	26.607
Self-efficacy	.241	.065	.267	3.740	.000			
Self-esteem	.975	.245	.279	3.921	.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5$

IV. 논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대학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입학하지만, 막상 대학 입학 후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 및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주된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차이 분석결과에서 연령이 20세 미만이고 1학년이며, 적성과 취업을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에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p < 0.05$).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았다는 정효주와 정향인(201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나, 가족과 동거하고 가정경제가 '중'인 경우에 학교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난 김근면과 차선경(2013)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신입생은 주로 교양 교과목 위주로 수강이 이루어지고 전공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학년에 비해 적으며,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장실습과 국가시험 준비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신입생 때부터 연령과 출신고등학교,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고려한 학년별 맞춤형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확대 지원하고 치위생 전공에 대한 적응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한 비전제시와 직업적 목표를 뚜렷이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대학생이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학생활적응이 높다고 보고가 되기도 하여(박미정, 2012), 대학생활에서의 동아리활동, 관심 분야의 취미 및

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 영역별 대학생활적응도는 사회적 적응도에 있어서 3학년의 적응력이 가장 높았으며, 2학년보다는 1학년의 적응력이 높았다. 대학에 입학하여 '적성과 취업을 고려하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학문적 적응도, 정서적 적응도, 대학에 입학 후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및 전공에 대한 익숙함과 뚜렷한 직업적 목표의식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되며, 신입생들의 대학에 입학 당시부터 전공 선택에 있어 취업을 고려한 의사 및 대학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이 보여준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신고등학교에 따라 학문적, 정서적 적응도를 높여 대학생활 적응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기초 전공지식 및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유능함과 지식의 성취를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노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학업과 같은 목적의 성취감이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Komarraju & Nadler, 2013). 또한, 자아존중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정도로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는 대학생활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신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생활에서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감정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남과 천혜원, 2013). 본 연구에서도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대학생활적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 = .279$), 자기효능감($\beta = .267$)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사례 중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지용, 2008),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 신입생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신입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김수미와 정경은, 2013), 교육과정 운영 시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이 큰 요인으로 교수와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교수의 역할이 학문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태도와 인간미를 가지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학생들과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김정남와 천혜원, 2013). 단순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 인생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대학생활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양적, 물적, 제도적 측면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미래 우수한 치과위생사 배출로 이어지면서 구강건강증진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인력 양성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의 범위가 일부지역 및 일부 전공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치위생 전공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 지역별 치위생과 전공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이며 만 19세 이상인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SPSS Program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과 학생의 대학생활적응도는 연령이 20세 미만이고, 1학년이며, 치위생과에 입학한 동기가 '적성과 취업을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에 높았고, 출신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이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 높았다.

둘째, 세부 영역별 대학생활적응도는 사회적 적응도에 있어서 3학년의 적응력이 가장 높았으며, 2학년보다는 1학년의 적응력이 높았다.

셋째, 대학에착도에 있어 '적성과 취업을 고려하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대학에착도가 가장 높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학문적 적응도, 정서적 적응도, 대학에착도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 높았다.

넷째, 치위생과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때부터 연령과 출신고등학교, 학년별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고려한

학년별 맞춤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의 필요성,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범위가 일부지역 및 일부 전공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치위생 전공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 지역별 치위생과 전공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생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권혜진. (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 권현주. (2011).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3. 김근면, 차선경. (2013). 간호대학 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322-332.
4. 김수미, 정경은. (2013).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4), 201-210.
5. 김영선, 이정화. (2016). 치위생과 학생의 감성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16(6), 919-929.
6. 김정남, 천혜원. (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만족도,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외식경영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외식산업학회지, 9(3), 81-92.
7. 김지웅. (2008). 대학생들의 멘토링 기능이 대학생활적응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학회, 11, 77-101.
8. 김혜경, 김경덕. (200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 13(2), 229-236.
9. 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2012).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학생활동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27-337.
10. 정효주, 정향인. (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11. 이윤정. (2000).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계획[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2. 오윤정. (201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디지털융합학회지, 15(7), 307-317.
13. 유은영. (2009).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6), 225-236.
14. 윤현경, 최미숙, 조우순. (2015).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과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6(1), 1-14.
15. 양숙미. (2000).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16. 정애경, 김지심, 김정화. (2013).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공학교육연구, 16(5), 11-18.
17. 장수현, 이미영. (2015).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극복력과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2), 255-265.
18. 최혜정, 이명선. (2013). 일부 치위생과 신입생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연관성. 대한보건연구, 39(2), 129-138.

1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가족·개인 사례관리 관련 척도이해.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21.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8년 교육기본통계. 서울: 교육부.
22. Baker RW, Siryk B. (1979).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23.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24.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i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25. Komarraju, M., Nadler, D. (2013).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Why do implicit beliefs, goals, and effort regulation matter?.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67-72.
26.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New York: Basic Books.
27. Rosenberg M, Leonard I, Pearlin. (1978). Social clas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and adul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1), 53-77.
28. Tipton RM, Worthington EL. (1984). The measurement of generalized self-efficacy: A study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545-548.